

금호타이어 '통장 압류' 공탁으로 숨통 트이나

광주지법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강제집행정지 요청 2분기 영업손실 354억원 적자전환...매출 1493억원 감소

'법인 통장 압류'를 당한 금호타이어가 법원 공탁으로 숨통 트이기에 나섰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14일 광주지방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는 비정규직 노조의 청구금액(204억원) 중 일부를 법원에 공탁금으로 내고 법원 인계 압류를 풀기 위한 조치다. 압류 집행정지는 법원 공탁을 위한 선제 조치로, 법원이 가압류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여야 사측은 공탁을 신청할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그동안 비정규직 노조가 채권압류를 취하할 것을 요청했지만 불

발되자, 법원 공탁으로 계좌 압류 문제를 풀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창사 이래 초유의 법인 통장 압류를 겪은 상황 아래 내린 결정"이라며 "가압류 집행정지 요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탁 등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비정규직 노조가 지난달 30일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통해 법인통장을 압류당한 상태다. 도급업체가 고충한 근로자로 구성된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1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광주지법 1심 재판

부는 원고들이 금호타이어와 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정규직 사원과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임금차액과 그에 따른 이자 등 204억을 가압류해 금융거래가 중단되면서 지난 7월 말 직원들의 수당, 납품업체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다. 1인당 50만원 지급되는 총 20억원 상당의 휴가비도 주지 못한 상황이다.

금호타이어는 압류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외 신뢰도 하락에 이은 유동성 위기가 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이게 된다. 오는 27일 직원들의 임금과 수당 지급도 어렵게 됐다. 이밖에 물품대금 지연 등으로 광주·전남 260여개를 포함한 전국 670여개 협력업체의 자금난과 줄도산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내외 타이어 수요 급감으로, 올해 2분기 영업손실 354억원을 기록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4일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영업손실 354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적자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2분기 매출액은 4677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6170억원에서 1493억원(-24.2%) 감소했다. 2분기 영업이익률은 -7.6%를 기록했다.

금호타이어 측은 "하반기 들어 매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비용 및 원가 절감 등 비상경영을 통해 영업손실 최소화하겠다"며 "18인치 이상 고인치 타이어 판매를 확대하고 프리미엄 신차용 공급 및 상품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은행, 집중호우 복구 앞장 31사단에 위문품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오른쪽)은 최근 지역 향토부대인 제31향토보병사단(사단장 소영민)을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힘쓰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1000만원 상당 위문품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위드 코로나' 시대...유통가, 하객 답례품·면역력 강화에 집중

광주신세계, 결혼·돌잔치 등 답례품 활용 선물세트 선보여 롯데아울렛, 지역 신선식품 등 23일까지 중소기업 기획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비대면과 안전, 건강 등이 일상에 녹아든 '위드 코로나' (With Corona) 체제가 견고해지면서 지역 유통가도 발 빠르게 진열을 재배치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최근 지하 1층 식품관과 8층 생활전문관에서 답례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물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광주시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식사하지 않고 축하하기' 캠페인에서 착안한 기획전품들이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결혼식, 돌잔치 등 행사 때 결혼식장 관계자와 혼주 등에게는 '식사보다 답례품 제공하기'를 권고하고 나섰다.

광주신세계는 이런 경향에 맞춰 하객에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 2만~9만원대 선물을 내놓고 있다.

지하 1층 식품관에서는 4만원대 '오설록' 차 선물과 7000원대 '메나주리' 쿠키 세트, 9만원대 홍삼세트 등이 매대를 채웠다.

생활전문관에서 선보이는 답례품으로는 2만원대 수건과 4만원대 수저세트, 6만원대 디퓨저세트가 대표적이다.

롯데아울렛 광주수원점은 광주·전남 중소 식품업체와 손잡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호응을 얻고 있는 식품 기획전을 오는 23일까지 1층 특별매장에서 진행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나주에서 생산된 친환경 새싹보리분말과 양배추환, 헛개환, 담양 플레인요거트·치즈, 남도김치, 토종닭, 강진 전복 등이 있다.

지난 13일부터 추석 선물 예약판매를 시작한 이마트는 올해 건강식품 선물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사전예약 기간 중 선보인 건강 식품 세트만 약 130종에 달한다. 지난해 추석 사전예약 기간 중 건강식품 선물세트가 약 70종 인 것을 고려하면 85%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마트는 건강식품 수요 증가에 맞춰 최대 할인율 50%를 내걸고 상품을 구매하면 덤으로 하나 더 주는 '1+1' 상품을 16종으로 늘렸다.

이마트에 따르면 이달 1~12일 건강식품 매출은 1년 전보다 23.6% 증가했다. 이마트 건강식품 판매에서 30대 소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월 15.8%에서, 4월 16.7%, 7월 21.9%로 점차 늘고 있다. 40대 비중도 1월 24.7%, 4월 26.6%로 증가하고 7월 비중은 28.5%로 30%에 육박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원래 50대 연령층의 건강식품 구매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올해 7월에는 40대 구매비중이 28.5%를 이뤄 큰소리로 등극했다"며 "30~40대 건강식품 수요를 잡기 위해 홍삼 뿐만 아니라 유산균, 플라센, 새싹보리, 녹용세트 등을 단독으로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7일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8층 생활전문관에서 '식사하지 않고 축하하기' 캠페인에 맞춰 답례품 수저, 디퓨저, 수건 선물 등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전남농협, 아열대과일 브랜드 '오매향' 홍보

수도권 현대백화점서 기획전 구매 고객에 무화과 증정도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전남 과일브랜드 홍보를 위해 오는 9월6일까지 수도권지역 백화점 11곳에서 기획전을 벌인다.

전남본부는 지난 14일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구로구)을 시작으로 오는 9월6일까지 20일 동안 수도권 현대백화점 11개 점포에서 전남 아열대 브랜드 '오매향' 홍망고와 전남 과일 브랜드 '상큼'에 무화과 우수선 홍보 특별기획전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점포는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무역센터점 등 수도권 전 점포 11곳이다.

전남 아열대 과일 '오매향' 브랜드를 단 홍망고는 지난달부터 현대백화점과 광주신세계 등에 납품되고 있다.

이달에는 본격 출하기를 맞은 전남 대

표과일 '상큼'에 무화과에 대한 수도권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남본부는 해당 상품 구매 고객에 '상큼'에 무화과 미니팩(2구)을 증정한다.

김석기 본부장은 "상큼애와 오매향 브랜드를 전남 농촌의 미래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창작 교육 참가자 모집

전과정 무료 교육·선착순 마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중단됐던 창작공간 '메이커스페이스'의 문을 다시 열고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진흥원 교육은 크리에이터들의 체계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오는 22일 '3D 프린터 기본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심화교육은 창작워크숍은 총 12회 이상 열린다.

창작 활성화를 위한 장비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3D 프린터 기본 교육 ▲레이저 커터 교육 ▲후가공 장비 교육 ▲창작워크숍(심화교육) 5개 과정이 있다.

교육 신청기간은 과정별로 다르며 전남 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각 과정별 10명 내외로 전과정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 마감된다. 창작 장비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는 크리에이터 및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